

# “한국불교는 한국인 스스로 세워야”



약산 스님 (통도사 취운선원장)

1940년 생. 1955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1961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재방선원에서 50여 안거를 성만하고 1984~1990년 통도사 보광선원장, 1994년 통도사 강주, 1999~2001년 영축총림 통도사 부방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통도사 취운선원장을 맡고 있다.



여름의 솔밭은 그다지 뜨겁지도 않았고 간간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쉬어가기에 좋았다. 한 스님이 솔밭에서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이사를 가는 긴 행렬을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두 발로 개미들을 깔아뭉개고 있었다. 순식간에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약산 스님이 “왜 죽입니까?”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스님이 태연하게 답했다. “불생불멸이라 했는데 태어난이 어디 있으며, 무슨 죽음이 있는가? 수좌는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구만?”

“이 밧고 화두를 들고 있던 열여덟 살의 약산 스님은 이 밧에 화두를 깨웠다. 나의 진성 자체가 불생불멸이어서 항상 있는 것임을 깨달았으며, 내 몸뚱이를 끌고 가는 주인공을 알겠더라”는 말을 덧붙였다. 설봉 스님에게로 달려가 자신이 깨친 것을 내보였더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다. 단지 ‘이 밧고’로 계속 공부하면 진보성이 없다면서 조주 무(無)자 화두를 주셨다.

약산 스님은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소학, 대학을 공부하고 논어, 맹자를 익혔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도인(道人)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으며 절에 가면 많은 도인을 만날 수 있음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꼭 도인이 되고 싶었던 열두 살 어린 소년은 집을 떠나 통도사로 출가했다. 통도사에서 행자생활을 마친 스님은 범어사에 공부 많이 한 동산 스님이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길로 범어사로 갔다. 그곳에서 설봉 스님을 만나 선을 익히게 되었다. 약산 스님은 이제까지 설봉 스님만큼 선지를 지니신 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지극히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스승님이 그럽다고 토로했다.

약산 스님은 무자화두를 받고 나서 매일 같이 설봉 스님의 물음과 대답을 받아야 했다. 시원한 답도 하지 못한 채 그러저럭 일 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약산 스님이 조금은 볼멘소리로 “어찌 개에게만 불성이 없겠습니까?” 하고 반문했다. 그러자 설봉 스님께서 “인마, 개가 불성이 없는 것이 아

니라 니가 없다”라고 꾸짖었다. 설봉 스님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불시에 깨달았다. 이십대에 화두를 깨쳐버린 약산 스님을 두고 설봉 스님은 “너는 여러 생을 통해서 공부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중국 선불교는 오백 년 동안 1700공안이 만들어졌지만, 한국불교 역사는 천육백 년, 한국 선의 역사는 천이백년이지만 화두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중국의 공안과 조사어록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기에 중국의 <본초강목>이나 그런 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한국불교만의 선문을 연구하고 선풍(禪風)을 만들어가서 중국불교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십대에 깨닫고 나서 나는 한국 승려니까 한국도화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내가 아는 만큼 남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약산 스님은 출가하고부터 선 이외에는 눈 한 번 돌려 본 일이 없다고 했다. 경전은 증생

라고 의문을 품겠지만, 그런 기개와 분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대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69년에 설봉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1970년 서른 살에 통도사로 돌아왔다. 그 후 약산 스님은 사십여 년이라는 세월동안 통도사 산문을 나가지 않고 중국의 선(禪)이 아닌 한국불교만의 선을 수립하기 위해 알아주는 이 없어도 혼자서 공부하고 정리를 해 왔다. 그 동안 이백 권에 이르는 <천봉선문대전(天峰禪門大全)>을 저술했다.

중국 여산의 혜원 법사는 삼십 년 동안 산을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약산 스님은 몸이 아파 병원이나 약국에 갔던 일을 빼고는 거의 사십여 년 간 두문불출했다. 공부 좋아서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공부한 것도 있지만, <천봉선문대전>이 세상에서 빛을 보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했기에 산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강산이 느리게 바뀐다고 해도 네 번은 바뀌었을 텐데 얼마나 답답했겠느냐고 묻자 “도인의

약산 “어찌 개에게 불성이 없겠습니까?”

설봉 “인마, 개가 아니라 너에게 없다”

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기에 선사가 법상에서 경전을 인용하여 법문을 하거나 진언을 말한다는 것은 선종의 분상에서 본다면 어긋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부처님은 도를 깨달은 후 ‘여래가 깨친 도리는 내가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리가 본래 법계에 두루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쇠가모니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라도 깨친 자가 부처님입니다. 우리도 그 법을 깨치면 부처님보다 못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부처님보다 훌륭해질 수 있는가’

중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과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애시당초 버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답했다.

<천봉선문대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은 온전한 책의 형태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나와 준비는 벌써 마친 상태이다. 이백 차 원고지에 한문으로 쓰여진 것들을 복사하여 제본해 놓은 이백권의 책들이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있다. 그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돈오성불집(頓悟成佛集)> 10권, <수시법어집(垂示法語集)> 10권, <천봉화두집(天峰話頭集)> 20권, <화두평송집(話頭評頌集)> 20권, <화두문답집(話頭問答集)> 20권, <화두평창집(話頭評唱集)> 20권, <화두거양집(話頭擧揚集)> 20권, <상당법어집(上堂法語集)> 20권, <시중법어집(示衆法語集)> 20권, <소참법어집(小參法語集)> 10권, <선문송구집(禪門頌句集)> 10권, <제경활요집(諸經撮要集)> 20권 등이다. <돈오성불집>에는 부처님으로부터 중국의 선종사에서 뛰어난 선사들을 약 500명 정도 뽑아서 간략한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며, <수시법어집>에는 700편의 화두



선지식을 찾아서 약산

가, <천봉화두집>에는 1300편의 화두가 담겨있다. 중국의 화두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불교에 맞추어 새롭게 화두를 써나갔다.

약산 스님은 <전등록>을 보아도 중국의 쟁쟁한 선사들도 때로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답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메꾸어 놓기도 했는데, 내가 맡아놓은 화두가 100% 맞다고 생각지는 않으며, 설령 50%, 30%정도 답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저는 족하다고 생각해요.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지만, 한국불교에 이러한 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스님의 바램이 있다면 수좌들 한 오목십 명 정도 모아놓고 <천봉선문대전>을 텍스트로 해서 연구와 토론을 해나가면서 한국 불교의 선지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라 했다. “한국불교는 한국인 스스로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약산 스님의 말씀은 불자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화두가 아닐까 싶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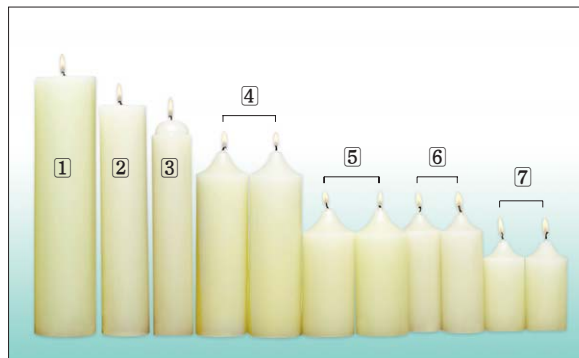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①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 ②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③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④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⑤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⑥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⑦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⑧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쑥향양초
  - ① 원기둥 7.4φCm × 29Cm
  - ② 돈타레 5.6φCm × 27Cm
  - ③ 밀 대 4.7φCm × 25Cm
  - ④ 1호 5.9φCm × 20Cm
  - ⑤ 2호 5.9φCm × 14Cm
  - ⑥ 3호 4.7φCm × 13Cm
  - ⑦ 4호 4.7φCm × 10Cm

##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 35cm



- 야광 양초 70φ × 35cm
- 원기둥 마패 7.4φ × 30cm
- 등신불 마패 4.7φ ×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 주소창 양초.net